

“에벤에셀의 하나님”

사무엘상 7:3-12

하나님께서 우리교회를 세우실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5 대 사역 비전을 주신 것이 바로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차세대를 위한 교회’, ‘제자훈련하는 교회’, ‘영적 육적 필요가 충족되는 교회’ 입니다.

우리교회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나이로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17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것을 경험한 것이 17 세부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교회는 단지 성도 숫자만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는 교회, 그리고 목적의식이 분명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사신을 섬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상을 저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대한 민족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모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겁을 먹고 사무엘에게 나아와서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 블레셋 군대 가운데 벼락이 떨어지고 천지가 진동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가 놀라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 틈을 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고백하며 ‘에벤에셀’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

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삼상 7:3)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만약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촉구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 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삼상 7:5-6)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회개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단발성의 회개가 아니라 다시는 우상의 종교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못을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식은 우리가 끊지 못하는 흉악한 결박을 끊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이 곧 능력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 11:45)

거룩하지 않고는 결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을 추구하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마음속에 자만심, 이기심, 야망, 쾌락 같은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영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착해지고 선해지며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예배에 적극적일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삼상 7:9)

적군이 쳐들어 올 때 그들이 한 것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룬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라고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시간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 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 1:11-13)

유다 백성들은 제사 그 자체로 자신들의 죄가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은 제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게 제물을 드리면 그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는 예배 자체가 일종의 면제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 모든 잘못은 용서되었고 이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예배는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기도할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삼상 7:8)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요엘 1:14)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길이요. 복 받는 길입니다.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애씁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모두 미스바에 모여 회개했는데, 이 때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와 블레셋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탄이 이스라엘의 회개와 부흥을 막기 위한 전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삼상 7:10-12)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우레가 발생하여 그들은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합니다.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다보니 ‘벤갈’이라는 곳까지 이르렀는데, 그 곳에 돌을 세워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벤에셀이라는 같은 이름의 장소(삼상 4:5)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곳은 실패의 장소가 될 것이고, 바른 신앙으로 예배하면 승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는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광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오늘 말씀에서,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우리교회가 창립 17 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도 2018 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교회와 또 내 인생을 돌아보며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봅시다.